

## | 특집 · 육계사육표준계약서 활용화 방안은 없는가!

서 영양제와 발효제를 추가로 비용을 들여가며 사용하는 등 이중적인 낭비를 하고 있다. 이는 5만수를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추가로 150~200만원정도의 비용이 더 드는 셈이며, 이 돈은 고스란히 농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과거에는 5일 이내 폐사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주었으나 최근에는 농가에 폐사가 발생하면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필자의 경우도 5만수 계군중 1주일에 1,500수의 폐사가 발생했는데도 그대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혹서기때 스트레스를 받은 종계군들이 현재 병아리 생산에 가담하면서 품질 저하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사양가들이 사육에 전

념하여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약추정도는 가려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금년에는 이러한 병폐가 사라졌으면 한다.

우리지역 육계인들의 실정을 보면 육계가격이 지난해 하반기 동안 좋은 시세를 형성하면서 육계를 사육하는데 어느정도 만회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열주체들만 재정이 튼튼해지고 농가들은 과거보다 더 못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공정한 거래가 진행되어 왔다면, 하루속히 과거의 계약조건으로 환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가와 계열주체가 서로 믿고 공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의 활용 방안 마련에도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육계사육표준계약서 활용방안

## 수평적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문제 해결을...

김 국 록 본회 대구경북지회 구미육계지부장

2005년 을유년 닭의 해가 동쪽에서 붉게 떠오르는데도 양계, 특히 육계업에 종사하는 사육인들은 별로 밝게 못 느껴지는게 비단 필자 혼자만의 모습일까요?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04년, 지난 25년간 육계업을 하던 중 정말 가장 지긋지긋했던 해라고 생각한다.

2003년 12월 천안에서 전국 지부장회의 때 육

계분과위원장이신 강용식 회장이 “충북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했대요.” 하고 얘기해도 우리들은 “언제는 겨울에 안 왔나!”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어



떻게 언론, 매스컴에서 “조류독감 발생!”하면서 뽕 튀기고 국내외 매몰장면을 실재없이 방영하여 착하다 착한 사육농가의 자살까지 불러온 사태가 되고 말았다.

같은 말이라도 “아”라고 “어”다르는데 “독감”이란 수식어가 붙자 소비자들은 ‘닭고기 먹으면 죽는다.’라는 자기 결론으로 인하여 전국의 아주머니들 장바구니에 “내 새끼 닭고기 먹이면 안돼!” 하면서 외면했다. 그리고는 익혀먹으면 무해하다고 정부, 매스컴 등에서 외쳐댔지만 곧바로 회복되는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 와중에 계열업체들은 계열농가의 사육수수를 알 듯 모른 듯 사정없이 칼질을 몇 번이나 해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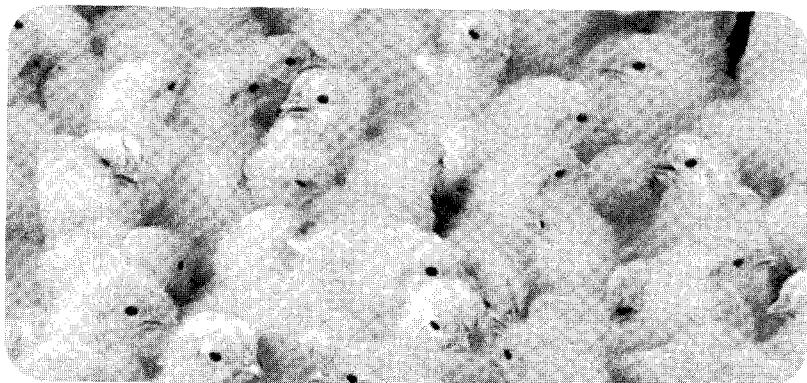
그래도 양축농가는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해 아닌 이해를 하면서 그저 병아리 입식만 받기를 원했고 심지어 지방의 계열농가는 입식 한회분의 사육비는 50%만 받겠다고 자기 살을 깎는 감내도 하겠다는 제의도 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생계 값이 고공행진을 해도 계열사 계약서는 변동이 없었다.

물론 계열주체 없는 계약농가 없고 농가 없는 계열주체도 없다.

이 간단한 방식이 왜 이렇게 어렵게 꼬이고 있는가?

필자가 생각할 때는 계열주체에서 사육농가들을 “수직적 종속관계”를 지양하고 “수평적 동반자”라는 인식만 한다면 풀린다고 본다.

지난번 월간양계를 통해 조사, 발표된 설문조사



에서 육계인들의 44%가 육계표준계약사육서를 육계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로 꼽았지만 실제로 느끼기에는 이보다 많은 양계인들이 표준계약서를 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전국육계인대회 때 ‘병아리 사육포기 각서’ 문제가 나오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계열농가들은 참석도 하지 않았다. 아니 계열사들의 압력으로 동참하려 했던 육계인들이 불참했다는 뒷 얘기도 있다. 이처럼 아직도 계열농가들은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나서려하는 농가들이 많지 않다.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약사육농가들의 단합을 기대해 본다.

아무튼 올유년 새해에는 큰 닭이 “꼬끼오”하면 뒤에서 “꼬꼬댁 꼬꼬”하며 화답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한다.

“꼬끼오”했을 때 “???????”처럼 답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꼬끼오”는 혼자해도 “꼬꼬댁 꼬꼬”를 외칠 수 있는 숫자는 많이 있다.

농가들의 요구와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우리 서로가 양보와 화합의 미덕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

아무쪼록 올유년 한해 육계인들의 권익을 위하여 우리 모두 “꼬 끼 요!”, “!!!!!!!!!!!!!!” 양계